

〈참고. 시카고 인용 각주-참고문헌 형식<sup>24)</sup>〉

구분		예시
도서	각주	##. Author's First and Last Names, <i>Title of Book: Subtitle of Book</i>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s Name, Date of Publication), page numbers.
	참고문헌	Author's Last Name, Author's First Name. <i>Title of Book: Subtitle of Book</i> . Place of Publication: Publisher's Name, Date of Publication.
학술논문 (온라인)	각주	##. Author's First and Last Name, "Title of Article: Subtitle of Article," <i>Title of Journal</i> Volume Number, Issue Number (Date of Publication): page numbers.
	참고문헌	Author's Last Name, Author's First Name. "Title of Article: Subtitle of Article." <i>Title of Journal</i> Volume Number, Issue Number (Date of Publication): page numbers.

## ④ 밴쿠버(Vancouver) 양식

- 1979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종합의학학술지 편집인 일부의 비공식 모임이 있었고, 여기에서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형식과 지침을 만들어서 밴쿠버 양식이라 불림.
-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의 '의학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저작물의 생산, 보고,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권고안'(ICMJE Recommendations)으로 발전됨.
- 밴쿠버 양식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인용 형식을 기본으로 만들어져서 인용 형식에 관련된 부분은 NLM 양식과 동일함.
- 문헌 인용에 한하여 밴쿠버, NLM, The Uniform Requirements(ICMJE Recommendations)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각 학술지에 따라 표현되는 이름은 다를 수 있음.

<sup>24</sup>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2018, pp.151-153.

## 2.3.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 연구자는 자체 검증을 위한 보조도로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절이 의심스러운 성과물을 1차 선별할 수 있음.
-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기본 어절의 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을 1차로 선별을 하기 위한 기계적 기준을 위해 설정된 값임.
- 동일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검사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 및 확보 자료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산출한 수치이므로 모든 학문 분야의 절대적인 표절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음.
- 표절 여부는 학문분야별로 인용의 방식이나 허용되는 범위 등과 관련한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만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올바른 인용표기 위한 길잡이

본 사례집은 가상의 문헌 등을 예시로 하여 인용표기 방법을 서술하였음.

학문 분야의 다양성, 예시 자료의 유형별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사례 인용 방식은 참고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함.

# 03

## 유형별 인용표기 적절·부적절 사례

---

3.1 도서

3.2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회 논문

3.3 연구보고서

## 03

## 유형별 인용표기 적절·부적절 사례

### 3.1. 도서

“

타인의 저서 내용을 짜깁기하여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내용을 구성한 경우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해당 사례는 두 가지 점에서 ‘짜깁기 표절’에 해당함. 타인(1)의 저서 중에서 단어를 추가 또는 동의어로 대체하거나 문장의 일부를 조합하여 변형했음에도 원저자의 저작물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타인(2)의 저서에서 두 문장을 가져왔으나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짜깁기해서 한 단락을 재구성하였음.
- 일반적으로 한 저작물에 인용 출처 표시가 없을 때, 그 저작물은 저자 자신의 고유한 연구로 인정됨. 따라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연구자 자신의 글과 타인의 글을 교묘하게 혼합해서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독자를 혼동시키는 ‘짜깁기 표절’ 행위는 심각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복수의 텍스트에서 내용과 문장을 짜깁기한 경우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 경험 없이는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함. 하지만 ‘짜깁기 표절’은 명백히 의도적인 표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절 의혹 시비가 불거지면 상세한 사항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할 것임.
-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원고에 활용할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가 우선시되므로, 사소한 간접인용도 원본 텍스트의 출처를 밝혀주는 것이 마땅함. 또한 적절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분량을 타인의 저작물에 의존하여 자신의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원저작물



### 타인(1)의 저서

1990년대의 한국 사회는 이른바 ‘신인류’가 주도하는 ‘포스트 혁명의 시대’였으며, 그 과정에는 유례없이 폭발한 대중의 정치적 감수성이 큰 역할을 했다. 즉 그것은 구태의연하게 이어져오던 군부독재정권의 탈환을 가져온 대중투쟁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자 권위적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민주주의의 승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사회운동사의 절정기였던 1991년 봄 전염병처럼 번저간 젊은이들의 잇따른 분신자살을 시작으로 그 거대한 혁명적 열정이 급격히 냉각되어버렸는데, 이때가 이른바 ‘분신정국’이었다.

### 타인(2)의 저서

분신정국을 초래한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폭행치사사건으로 촉발되었다. 학생들은 전국 사립대학 평균 15.5%에 달하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 시위를 벌였고, 시위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대가 사망한 것이다.

## 부적절한 인용 예시



그것은 대중투쟁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민민주주의의 승리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결실을 이룩했다. 그런데 1991년 봄, 청년들의 연이은 분신자살을 시작으로 혁명적 열정이 급격히 냉각되어버렸는데, 이 시기가 바로 ‘분신정국’이었다. 분신정국을 초래한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폭행치사사건으로 촉발되었다. 학생들은 전국 사립대학 평균 15.5%에 달하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 시위를 벌였고, 시위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대가 사망한 것이다.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그것은 대중투쟁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민민주주의의 승리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결실을 이룩했다. 그런데 1991년 봄, 청년들의 연이은 분신자살을 시작으로 혁명적 열정이 급격히 냉각되어버렸는데, 이 시기가 바로 ‘분신정국’이었다.[1] 분신정국을 초래한 1991년 5월 투쟁은 강경대 폭행치사사건으로 촉발되었다. 학생들은 전국 사립대학 평균 15.5%에 달하는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 시위를 벌였고, 시위 학생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대가 사망한 것이다.[2]

■ 각주 [1] 김성희,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 다래출판사, 2021, 258쪽.

[2] 장연수, 『한국 청년문화사』, 도서출판 이우, 2022, 68쪽.

“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표기하지 않고 인용한 경우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해당 사례에서, 과거에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다음의 연구에 활용했으나 인용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연구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 가상 사례의 저자는 ‘(가명)이명진’으로, 저자는 자신이 발표한 이전의 저작물에서 일부의 내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각주 [1]’의 인용표시를 통해 밝혀야 함.
- 또는 “졸저, 『(가상 저서)미국의 히피문화』, 호원출판사, 2019, 14쪽.”으로 표시해도 무방함. ‘졸저(拙著)’란 자신의 저작물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므로, 이미 발표된 자신의 저작물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임.
- 인용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도용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 일부를 인용 표시 없이 새로운 저작물에 재활용함으로써 마치 별개의 저작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자기표절’이라고 하며, 하나의 연구를 복수의 연구업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독자와 기관을 속이는 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됨.

### 부적절한 인용 예시



- 하단의 가상 원고의 원저자는 ‘(가명)이명진’으로, 본인의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를 사용하였음.

“1962년 5월 3일, 주지사가 인종차별”. 이렇게 영화 <헤어스프레이>는 실업과 범죄와 빈곤, 그리고 인종분리정책에 의한 흑인차별 의식이 만연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 계기를 1960년대의 볼티모어를 통해 재현했다.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미국 드라마 <더 와이어(The Wire)> (2002~2008) 역시 볼티모어의 거주자들이라면 쉽게 눈치 챌 법한 그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빈민가의 생태를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묘사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마약, 범죄 등 인종적 소외문제를 섬세하게 조명한 것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1]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볼티모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인종 갈등, 젠더 불평등, 성소수자, 노조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각주 [1] 이송희,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 미래사, 2021, 32쪽.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1962년 5월 3일, 주지사가 인종차별”. 이렇게 영화 <헤어스프레이>는 실업과 범죄와 빈곤, 그리고 인종분리정책에 의한 흑인차별 의식이 만연한 미국 사회의 부정적 계기를 1960년대의 볼티모어를 통해 재현했다.[1]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미국 드라마 <더 와이어(The Wire)> (2002~2008) 역시 볼티모어의 거주자들이라면 쉽게 눈치 챌 법한 그 도시의 환경적 특성과 빈민가의 생태를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묘사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마약, 범죄 등 인종적 소외문제를 섬세하게 조명한 것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2]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볼티모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인종 갈등, 젠더 불평등, 성소수자, 노조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들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 각주 [1] 이명진, 『미국의 히피문화』, 호원출판사, 2019, 14쪽.

[2] 이송희,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 미래사, 2021, 32쪽.



### 참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2장 제8조

제2장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제8조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①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는 연구 결과물을 담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 데이터는 정확한 출처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 (중복게재·출간의 제한)

①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재·출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2. 연구용역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또는 저서로 게재·출간하는 경우
3.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4.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5. 학술지에 짧은 서간논문(letter, brief communication 등)을 게재한 후 이를 긴 논문으로 바꾸어 게재·출간하거나, 연구 데이터,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게재·출간하는 경우
6.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및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간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되는 경우
7. 이미 게재·출간된 논문 또는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교양서, 대중잡지 등 비학술용(非學術用)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출간하는 경우
8. 그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게재·출간으로서 학문적 진실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허용된다.

“

저자가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의 출처만  
표시하고 2차 문헌 재인용을 누락한 채, 외국어로 된  
문헌을 번역하여 인용한 경우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서로 다른 저자가 동일한 1차 문헌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용한 의도는 각자 다를 수 있고, 또 앞선 저자가 원문에 변형을 가해서 인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차 문헌에 인용된 원문을 재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더욱이 2차 문헌에 인용된 원문에 오류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될 수 있음. 따라서 2차 문헌에 인용된 1차 문헌을 재활용할 때는 반드시 2차 문헌에서 재인용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1차 문헌과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밝혀 주어야 함.
- 인용은 원문(1차 문헌)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신의 저작물에 인용을 할 때는 꼭 원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함. 2차 문헌에는 1차 문헌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인용되거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원문과 달리 인용이 된 경우가 매우 많음. 만약 원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차 문헌(원문)과 2차 문헌(재인용)의 출처를 함께 밝혀야 함.
- 외국어 문헌을 직접 번역해서 자신의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문헌의 출처를 표시해야 함. 또한 외국어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문헌을 1차 출처로 하고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하여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차 문헌(원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문 해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인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문헌과 2차 문헌의 출처를 모두 표기해 주어야 함.

## 원저작물



### 인용 원문(1차 문헌)

『東京新聞』, 1943. 8. 8. 3면.

崔承喜の舞踊は今、重大な転機を迎えている。今回の鑑賞会を見て思  
い出すのは、石井さんから洋舞を学んだ彼女だが、独立後、朝鮮舞踊を  
通じて崔承喜舞踊を創建し、まずはその芸術が完成したのだが、再び東  
洋舞踊という新しい境地に入ろうと数年間、公演の度にその試作を行  
っている。このような彼女の活動は賞賛に値するが、今日の成果を見る  
と、巨開は未完成品で、彼女が収めた朝鮮舞踊の成果と比べて東洋舞踊  
は少し距離があるようだ。それゆえにこの困難をどう克服するかが彼  
女にとって重大な転機になりそうだ。

### 재인용 원문(2차 문헌)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수신사, 1995, 39쪽.

최승희의 무용은 지금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감상회를 보고 생각  
나는 것은 이시이 바쿠에게 양춤을 배웠던 그녀이지만 독립 후 조선무용을  
통해 최승희 무용을 창건하여 우선은 그 예술이 완성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동양무용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려고 몇 해 동안 공연 때마다 그 시험  
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그녀의 활동은 찬양할 만하나 오늘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거개는 미완성품으로 그녀가 거둔 조선무용의 성과에 견주어  
동양무용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그녀에게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으로 보인다.[1]

[1] 『東京新聞』, 1943. 8. 8. 3면.

## 부적절한 인용 예시



가령 1943년 8월 8일 일본 제국극장에서 개최된 제1회 최승희 무용관상회의 프로그램은 일본무용 3편, 중국무용 3편, 조선무용 7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 이 프로그램에 조선무용 편수가 더 많았다고 해서 최승희가 ‘조선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동양무용’ 중심의 프로그램은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프로파간다로 기획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공연을 관람했던 일본의 무용평론가 에구치 히로시(江口博)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최승희의 무용은 지금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감상회를 보고 생각하는 것은 이시이 바쿠에게 양춤을 배웠던 그녀이지만 독립 후 조선무용을 통해 최승희 무용을 창건하여 우선은 그 예술이 완성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동양무용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려고 몇 해 동안 공연 때마다 그 시험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그녀의 활동은 찬양할 만하나 오늘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거개는 미완성품으로 그녀가 거둔 조선무용의 성과에 견주어 동양무용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그녀에게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으로 보인다.[2]

-후략-

각주 [1] 강만식, 『최승희 평전』, 설강, 2021, 291쪽.

[2] 『東京新聞』, 1943. 8. 8. 3면.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가령 1943년 8월 8일 일본 제국극장에서 개최된 제1회 최승희 무용관상회의 프로그램은 일본무용 3편, 중국무용 3편, 조선무용 7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 이 프로그램에 조선무용 편수가 더 많았다고 해서 최승희가 ‘조선적인 것’을 우위에 두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동양무용’ 중심의 프로그램은 태평양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프로파간다로 기획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공연을 관람했던 일본의 무용평론가 에구치 히로시(江口博)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최승희의 무용은 지금 중대한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감상회를 보고 생각나는 것은 이시이 바쿠에게 양춤을 배웠던 그녀이지만 독립 후 조선무용을 통해 최승희 무용을 창건하여 우선은 그 예술이 완성되었던 것인데, 또다시 동양무용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들어가려고 몇 해 동안 공연 때마다 그 시험작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그녀의 활동은 찬양할 만하나 오늘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거개는 미완성품으로 그녀가 거둔 조선무용의 성과에 견주어 동양무용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그녀에게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으로 보인다.[2]

-후략-

■ 각주 [1] 강만식, 『최승희 평전』, 설강, 2021, 291쪽.

[2] 『東京新聞』, 1943. 8. 8. 3면.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수신사, 1995, 39쪽에서 재인용)

“

타인의 저작물에서 인용한 글에 상세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하여 원저자와  
인용자의 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원저작물의 상당량을 직접 혹은 간접인용하면서도 그것을 세심하게 구분하여 각각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했다는 사실만 두루뭉술하게 밝힘으로써 어디까지가 원저작물을 인용한 부분이며 어디까지가 자신이 직접 쓴 부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
- 특히 원저작물을 인용한 부분이 원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일 경우, 아무리 인용 출처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출처표기의 목적과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충실한 연구 태도라고 볼 수 없음.
- 인용은 직접인용(큰따옴표)과 간접인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대한 출처를 각각 표시해야 함. 부적절한 인용 예시에서 각주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인용이므로 큰따옴표 표기를 하고 각각 원문의 출처를 표시해야 함. 각주 [2]의 포괄적 인용표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원저자의 글인지 분명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원저자의 주장을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인 것처럼 보이는 혼란을 일으키므로, 본문에서 활용한 인용 부분은 일일이 출처표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문장과 원저자의 문장을 명확히 구분해 주어야 함.
- 원고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구별해서 인용 출처표시를 해두는 습관을 길러 두는 것이 바람직함.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철저히 구분해서 일일이 인용 출처표시를 한다면 포괄적 인용표시를 할 만한 요소는 거의 사라질 수 있음. 최근에는 표절에 대한 윤리 기준이 엄격해 지면서 포괄적 인용표시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부적절한 인용 예시



이때 채동선은 민족문화 육성을 지향하는 ‘전조선문필가협회’ 부회장(1946. 3), ‘고려음악협회’ 회장(1947. 3), ‘고려합창협회’ 회장(1949. 1)을 맡으며 우익 민족주의 진영 문화예술단체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채동선이 주도한 ‘고려음악협회’는 순수한 음악예술의 연구와 창작 급(及) 연주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근세주의와 비조선적 유물론을 배제하는 민족자결정신 하에 모든 음악활동을 하자는 악우(樂友)들이 단결되어 결성된 것이었다[1].

경제의 민주화와 정치의 민주화, 인간의 본연성인 유심적 인생관 예술관을 갖고 자유를 요구하는 예술가적 정신과 순수예술형식을 지향했던 채동선은 해방 정국에 이르러 음악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식민지시기에 순수 가곡 창작과 국악·민요의 채보·편곡에만 몰두하며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채동선은 해방 이후에 와서야 민족음악 수립과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한 건국이념 구현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치적 방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의 정치적 참여 그 자체가 민족적·국민적 양심과 예술가적 정신,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2]

- 후략 -

각주 [1] ‘고려음악회’에 대해서는 유혜경, 『채동선음악예술의 문화사적 가치』, 『한국음악예술』 제34집, 2021 참조.

[2] 채동선의 해방 이후의 행적은, 강지선, 『채동선의 가곡 연구』, 『서양음악』 제27집, 2019 참조.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이때 채동선은 민족문화 육성을 지향하는 ‘전조선문필가협회’ 부회장(1946. 3), ‘고려음악협회’ 회장(1947. 3), ‘고려합창협회’ 회장(1949. 1)을 맡으며 우익 민족주의 진영 문화예술단체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채동선이 주도한 ‘고려음악협회’는 “순수한 음악예술의 연구와 창작 급(及) 연주를



목적”[1]으로 한 단체로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근세주의와 비조선적 유물론을 배제하는 민족자결정신 하에 모든 음악활동을 하자는 악우(樂友)들이 단결되어 결성된 것”[2]이었다.

“경제의 민주화와 정치의 민주화, 인간의 본연성인 유심적 인생관 예술관을 갖고 자유를 요구”[3]하는 예술가적 정신과 순수예술형식을 지향했던 채동선은 해방 정국에 이르러 음악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문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식민지 시기에 순수 가곡 창작과 국악·민요의 채보·편곡에만 몰두하며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채동선은 해방 이후에 와서야 민족음악 수립과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한 건국 이념 구현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면서 정치적 방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의 정치적 참여 그 자체가 민족적·국민적 양심과 예술가적 정신, 그리고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4]

각주 [1] 김지홍, 『고려음악협회 탄생』, 『동심일보』, 1947. 3. 28. 2면.

[2] 채동선, 『조선악단의 운명은 어디로 가려는고』, 『협성일보』 1936. 8. 2. 2면.

[3] 채동선, 『유심적 예술관』, 『동아일보』, 1936. 7. 3. 3면.

[4] 강지선, 『채동선의 가곡 연구』, 『서양음악』 제27권 제1호, 2019, 52쪽 참조.

#### 참조: 연세대학교 연구출판윤리

##### 포괄적 혹은 부분적 출처표기

- 포괄적인 혹은 부분적인 출처표기로 독자가 인용문과 원문 출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포괄적 출처표시: 문단, 소제목 등 모호한 위치에 출처 표시
- 부분적 출처표시: 인용한 부분 전체에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인용 첫 문장, 첫 단어 등 좁은 범위에만 인용 표시

## 3.2.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회 논문

“

서론에 타인이 작성한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누락한 경우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부적절한 인용 사례는 서론(introduction)에 기 출판된 타인의 논문 [J. Kim, K. Pyo, D. Lee, W.-Y. Lee, J. Electroanal. Chem. 880 (2021) 114851] 서론 부분에서 3개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단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였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표절에 해당함.
-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sup>25)</sup>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됨.
- “타인의 아이디어”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 분석 체계, 연구 방법, 논리 및 가설, 이론, 결과에 대한 설명, 결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타인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자신의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발전되었다면 반드시 최초 아이디어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타인의 저작물”이란 학술적 저작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타인이 쓴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영상 등을 말하는데, 예로서 전문 학술 서적,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기타 간행물에 발표된 논문, 학술회의 발표 논문인 프로시딩,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투고 중인 논문, 학회 구술 발표 자료, 강의 교재, 웹상에 올려놓은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됨.
- 표절 의심 논문에서 인용한 타인의 문단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해당 분야에 대한 고유한 생각 및 분석 내용임. 타인의 학술적 견해를 자신의 서론 부분에 활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출처표시를 하여야 하지만, 원저자의 저작물에서 하나의 문단(본 사안의 경우 3개의 문장으로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복제 표절(verbatim plagiarism; copying)에 해당함.
-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내용이 일반 지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적절히 출처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25 「저작권법」(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음.

## 원저작물



### 타인이 작성한 논문(J. Electroanal. Chem. 880 (2021) 114851)

전기화학발광(electrogenerated chemiluminescence, ECL)은 전기 화학적으로 생성된 화학종들 사이의 높은 에너지 전자전달(electron transfer) 반응으로부터 발생하는 발광(luminescence) 현상이다. 전기 화학발광은 전극의 전위를 조절하여 생성시킬 수 있어 매우 낮은 바탕 신호와 함께 고감도, 넓은 검출 범위, 낮은 검출 한계, 우수한 시·공간적 조절 가능성, 시스템의 단순성, 초고속 검출 등의 현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이들 AuNCs들의 분자식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석화학적 응용 가능성 또한 제시되지 못하였다. 분자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근적외선 발광체 AuNCs의 합성 및 특성 평가는 이들에 대한 생분석화학적 응용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AuNCs의 크기, 전하, 캡핑 리간드의 종류에 따른 ECL 메커니즘, 방출 파장 및 발광 효율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용액에서 작용하며 정확한 분자식을 갖는 근적외선 방출 AuNCs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생화학적 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 중략 -

## 부적절한 인용 예시



최근에는 수십에서 수백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금 나노클러스터(gold nanosclusters: AuNCs)가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생체 독성이 없으며, 핵심원자의개수와캡핑리간드(capping-ligand)의종류에따라AuNCs의 광학 및 전기화학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어 전기화학 발광체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이들 AuNCs들의 분자식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분석화학적 응용 가능성 또한 제시되지 못하였다. 분자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근적외선 발광체 AuNCs의 합성 및 특성 평가는 이들에 대한 생분석화학적 응용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AuNCs의 크기, 전하, 캡핑 리간드의 종류에 따른 ECL 메커니즘, 방출 파장 및 발광 효율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용액에서 작용하며 정확한 분자식을 갖는 근적외선 방출 AuNCs에 관한

연구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생화학적 응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에서 근적외선 방출을 할 수 있는 Au<sub>25</sub>(SG)<sub>18</sub> NCs에 대해 그 합성법, 전기화학 및 ECL 특성, 그리고 분석화학적 응용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 요약 -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최근에는 수십에서 수백개의 원자들로 구성된 금 나노클러스터(gold nanoclusters: AuNCs)가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생체 독성이 없으며, 핵심 원자의 개수와 캡핑 리간드(capping-ligand)의 종류에 따라 AuNCs의 광학 및 전기화학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어 전기화학 발광체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 기존의 AuNCs들이 분자식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분석화학적 응용에 제한점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Lee와 그 연구팀에서 정확한 분자식의 정보를 가진 수용성 근적외선 발광체 Au<sub>22</sub>(glutathione)<sub>18</sub> NCs를 합성하여 그 전기화학 및 ECL 특성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AuNCs의 생분석화학적 응용 뿐만이 아니라 AuNCs의 크기, 전하, 캡핑 리간드의 종류에 따른 ECL 메커니즘, 방출 파장, 그리고 발광 효율의 상관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용액에서 근적외선 방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Au<sub>25</sub>(SG)<sub>18</sub> NCs를 합성하여 그들의 전기화학 및 ECL 특성, 그리고 분석화학적 응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 요약 -

참고 [1] R. Jin, Nanoscale, 2 (2010) 343-362.

문헌 [2] J. Kim, K. Pyo, D. Lee, W.-Y. Lee, J. Electroanal. Chem. 880 (2021) 114851.

### 표기 방법

이공계 논문의 경우 학술지별로 출처를 표기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 이 예에서는 Elsevier에 출판되는 Journal of Electroanalytical Chemistry의 출처 표기 양식으로 표기함. 학술지들은 "Guide to Authors" 또는 "Introduction to Authors"에서 인용 방식과 참고문헌 작성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그를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참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7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제3항

“연구자는 연구문헌·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방식을 달리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조합에 있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

원문을 직접 보지 않고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나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을 인용한 경우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부적절 인용 사례는 기 출판된 논문[J. Kim, H. Yi, D. Jeong W.-Y. Lee, Anal. Chem. 92 (2020) 114947]에서 첫 번째 문장 내용을 참고하였으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paraphrasing 표절”에 해당하고, 이후 문장의 경우는 기 출판된 타인의 논문[J. Kim, H. Yi, D. Jeong W.-Y. Lee, Anal. Chem. 92 (2020) 114947]을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논문에 활용하면서 1차 논문에 대해서는 출처 표시를 하였으나 원래 1차 문헌(primary sources)을 요약 정리한 2차 문헌(secondary sources)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2차 문헌 표절”에 해당함.
- 1차 문헌들에 대한 출처를 밝혔으므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타인의 글을 옮겨와 자신의 문서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
- 타인의 글을 소개할 때 출처만 표시하면 그 글을 문단 그대로 옮겨 (copy and paste) 써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표절에 해당됨.
- 타인의 글 전문을 소개하는 “전문 인용” 혹은 “직접 인용”은 원저자의 글의 뉘앙스를 살리면서 인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다소 사용되지만, 이·공학 및 의학 분야에서는 논문에서 원저자의 감정과 뉘앙스를 살려 글을 쓸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 인용이 활용되기는 어려움.
- 이공계 논문인 해당 사례는 학문 특성상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에 대한 1차 문헌을 자신이 직접 읽은 후 본인의 표현으로 요약해 기술하여야 함.

## 원저작물



### 2차 저작물(J. Electroanal. Chem. 92 (2020) 114947)

루미놀 화학발광은 매우 잘 연구된 시스템이나 대부분의 경우 염기성 용액에서만 강한 빛을 방출하고 중성 수용액에서는 그 빛이 매우 약한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루미놀 화학발광을 생체분석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성 수용액에서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새로운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cobalt(II) meso-tetratetraphenylporphyrine/CNT로 변형한 GC 전극 [4], 백금 나노입자로 수식한 산화주석 전극 [5], 그래핀으로 수식한 GC 전극 [6]에 기반한 루미놀 ECL 시스템이 중성 수용액에서 비교적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수식 전극들이 루미놀의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나노다공성 백금 전극(H1-ePt)의 경우 환원 루미놀 화학반응과 연관되어 있는 산소의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에 매우 탁월한 전극 촉매효과가 있어 중성 수용액에서 매우 강한 루미놀 화학발광이 관찰되어 실제 분석화학적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7].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루미놀 화학발광의 거동이 ECL 시스템에 사용된 전극의 물질과 표면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고 있다.

- 요약 -

- 참고 문헌** [1] T. A. Nieman, in Handbook of Instrumental Techniques in Chemical Analysis, F. Settle, Ed.,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1997, p.541.
- [2] W. R. Seitz, D. M. Hercules, Anal. Chem. 40 (1972) 2143-2149.
- [3] L. L. Klopff, T. A. Nieman, Anal. Chem. 55 (1983) 1080-1083.
- [4] Z Lin, J Chen, Y Chi, B Qui, G Chen, Electrochimica Acta 53 (2008) 6464-6468.
- [5] X. Chen, Z. Lin, X. M. Oyama, X. Wang, J. Nanosci. Nanotech. 9 (2009) 2413.
- [6] Y.-P. Dong, J. Zhang, W.-B. Zhang, J. Electrochem. Soc. 159 (2012) H692-H696.
- [7] J.H Han, J Jang, B.K. Kim, W.-Y. Lee, J. Electroanal. Chem. 660 (2011), 101-107.

## 부적절한 인용 예시



기존에 연구된 대부분의 루미놀 화학발광 시스템은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강한 빛을 방출하지만 중성 수용액에서는 그 빛이 매우 약한 단점을 보여주므로 루미놀 화학발광을 생체분석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성 수용액에서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새로운 루미놀 화학발광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cobalt(II) meso-tetratetraphenylporphyrine/CNT로 변형한 GC 전극 [1], 백금 나노입자로 수식한 산화주석 전극 [2], 그래핀으로 수식한 GC 전극 [3]에 기반한 루미놀 ECL 시스템이 중성 수용액에서 비교적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수식 전극들이 루미놀의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나노다공성 백금 전극(H1-ePt)의 경우 환원 루미놀 화학반응과 연관되어 있는 산소의 전기화학적 환원 반응에 매우 탁월한 전극 촉매효과가 있어 중성 수용액에서 매우 강한 루미놀 화학발광이 관찰되어 실제 분석화학적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루미놀 화학발광의 거동이 ECL 시스템에 사용된 전극의 물질과 표면 상태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강하게 의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전극 촉매 효과가 탁월한 금나노클러스터로 수식한 GC 전극에 기반하여 중성 수용액에서 작동 가능한 루미놀 ECL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에 대해 그 제조법, 특성, 실제 혈액 분석에 응용하였다.

- 요약 -

- 참고 문헌 [1] Z Lin, J Chen, Y Chi, B Qui, G Chen, *Electrochimica Acta* 53 (2008) 6464-6468.
- [2] X. Chen, Z. Lin, X. M. Oyama, X. Wang, J. Nanosci. Nanotech. 9 (2009) 2413.
- [3] Y.-P. Dong, J. Zhang, W.-B. Zhang, J. Electrochem. Soc. 159 (2012) H692-H696.
- [4] J.H Han, J Jang, B.K. Kim, W.-Y. Lee, J. Electroanal. Chem. 660 (2011), 101-107.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기존에 연구된 대부분의 루미놀 화학발광 시스템은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강한 빛을 방출하지만 중성 수용액에서는 그 빛이 매우 약한 단점을 보여주므로 루미놀 화학발광을 생체분석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성 수용액에서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하는 새로운 루미놀 화학발광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1].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에는 cobalt(II) meso-tetratetraphenylporphyrine/CNT [2], 백금 나노입자 [3], 그래핀 [4] 등의 나노구조물에 기반한 루미놀 ECL 시스템이 연구되었는데 나노 물질들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촉매 효과로 인해 중성 수용액에서 비교적 강한 화학발광을 방출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특히 나노미터 크기 영역의 기공을 갖는 백금 전극(H1-ePt)이 분자산소(molecular oxygen)의 환원 반응에 대한 우수한 전극 촉매 효과로 인해 강한 루미놀 화학발광이 중성 수용액에서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루미놀 화학발광의 분석화학적 응용 가능성이 되었다[5]. 이러한 보고된 연구 결과들은 루미놀 화학발광의 거동 및 방출 세기가 ECL 시스템에 사용된 전극의 물질 종류 뿐만 아니라 그 표면의 미세 상태(microstate)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전극 촉매 효과가 탁월한 금 나노클러스터로 수식한 GC 전극에 기반하여 중성 수용액에서 작동 가능한 루미놀 ECL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에 대해 그 제조법, 특성, 실제 혈액 분석에 응용하였다.

### - 요약 -

**참고 문헌** [1] J. Kim, H. Yi, D. Jeong W.-Y. Lee, J. Electroanal. Chem. 92 (2020) 114947.

[2] Z Lin, J Chen, Y Chi, B Qui, G Chen, Electrochimica Acta 53 (2008) 6464-6468.

[3] X. Chen, Z. Lin, X. M. Oyama, X. Wang, J. Nanosci. Nanotech. 9 (2009) 2413.

[4] Y.-P. Dong, J. Zhang, W.-B. Zhang, J. Electrochem. Soc. 159 (2012) H692-H696.

[5] J.H Han, J Jang, B.K. Kim, W.-Y. Lee, J. Electroanal. Chem. 660 (2011), 101-107.

“

타인의 논문에 기술된 실험 방법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부적절한 인용 사례의 첫 번째 문장은 기 출판된 타인의 논문[M.M. Yusuf, H. Imai, H. Hirashima, J. Non-Cryst. Solids, 285 (2001) 90]에 소개된 실험 방법에 기초하였으나, 원 논문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자기가 최초로 제2 방법을 만들어낸 것인 양 작성한 것이므로 “아이디어 표절”에 해당할 수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물질 제조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 하였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해당 물질 제조법을 논문을 작성한 저자가 최초로 개발한 방법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하는 기만행위를 한 것이므로 표절에 해당함.
- 또한 타인이 쓴 외국어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번역하여 쓰거나 요약 또는 말바꿔 쓰기를 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타인의 연구 논문에 기술된 방법론을 차용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차용한 방법론을 제시한 원 논문에 대해 출처표시를 하여야 하고, 연구 주제가 다른 분야의 논문이라도 원 논문의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 논문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인용 하여야 함.
- 또한 원저작물의 핵심 내용에 의존하여 자신의 저술을 하는데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문맥을 바꾼다고 해도 표절에 해당함. 학술 연구 활동에서 직접인용이 아닌 간접인용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읽고 자신의 용어(표현방식)로 다시 말바꿔쓰기를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되므로, 연구자는 타인의 문장을 요약 또는 재배치하거나, 용어를 변경할 경우에도 출처를 표시해야 함.
- 이공계 분야 연구 논문에서 과거에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물질 혹은 실험 대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롭게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Experimental Section” 혹은 “Methods Section”에서는 자신의 이전 문장뿐 아니라 연구방법에 대해 동일하게 문장을 작성하더라도 자기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근래 편집인들의 공통된 의견임.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이전 논문에 대해 적절히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원저작물



### 타인의 논문(J. Non-Cryst. Solids, 285 (2001) 90)

#### 2.1. Preparation of $\text{TiO}_2$ Films

$\text{TiO}_2$  films were prepared from  $\text{Ti}(\text{OC}_4\text{H}_9)_4$ , (99.9%, Soekawa Rikagaku, Tokyo) by hydrolysis in alcoholic solution and spin-coating. Ethanol (99.5%, Junsei Chemical, Japan) was used as solvent. The concentration of  $\text{Ti}(\text{OC}_4\text{H}_9)_4$  was  $0.15 \text{ mol l}^{-1}$ . The amount of ion-free  $\text{H}_2\text{O}$  used for hydrolysis was about five times the theoretical amount.  $0.17 \text{ mol HCl}$  was added to  $1 \text{ mol Ti}(\text{OC}_4\text{H}_9)_4$  as a catalyst. The solution was vigorously stirred for 1 h at room temperature. The precursor solutions were transparent and were very stable in air. Silica glass plates (Matsunami Glass) were used as the substrates.  $\text{TiO}_2$  coatings were prepared by spin-coating at 2500 rpm for 30s. Spinning was repeated (one after one, without heating between coating) up to five times.

## 부적절한 인용 예시



#### 2. 실험 및 방법

##### 2.1. ECL 센서의 제조

$\text{TiO}_2$  졸(sol)은 propan-2-ol에 녹인  $0.15 \text{ M Ti}(\text{OC}_4\text{H}_9)_4$  (99.9%, Sigma-Aldrich,) 5 mL 초순수 증류수(deionized water)와 혼합한 후 상기 혼합 용액에  $0.1 \text{ M HCl}$  용액 약 1 mL를 촉매로 첨가하여 결과적인 졸이 상온에서 투명해 얻어질 때까지 강하게 교반하여 제조하였다. 나피온(Nafion)과  $\text{TiO}_2$  졸의 부피비는 25% 에서 80% (v/v, %) 사이로 조절되었는데 이때  $\text{Ti}(\text{OC}_4\text{H}_9)_4$ 는 모두  $\text{TiO}_2$  졸로 변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 복합체 약 0.02 mL를 분취하여 유리막 전극 표면 위에 얇은 막을 형성시켰다.

- 종략 -

## 올바른 인용 방법 제안



### 2. 실험 및 방법

#### 2.1. ECL 센서의 제조

TiO<sub>2</sub> 졸(sol)은 propan-2-ol에 녹인 0.15 M Ti(OC<sub>4</sub>H<sub>9</sub>)<sub>4</sub>을 5 mL 초순수 증류수(deionized water)와 혼합하여 이전에 발표된 논문[27]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0.1 M HCl 용액 약 1 mL를 위의 용액에 촉매로 첨가한 후 결과적인 졸이 상온에서 투명해 얻어질 때까지 강하게 교반하였다. 나피온(Nafion)과 TiO<sub>2</sub> 졸의 부피비는 25% 에서 80% (v/v, %) 사이로 조절되었는데 이때 Ti(OC<sub>4</sub>H<sub>9</sub>)<sub>4</sub>는 모두 TiO<sub>2</sub> 졸로 변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위 복합체 약 0.02 mL를 분취하여 유리막 전극 표면 위에 얇은 막을 형성시켰다.

- 중략 -

참고 문헌 [27] M.M. Yusuf, H. Imai, H. Hirashima, J. Non-Cryst. Solids, 285 (2001) 90.

“

타인의 논문에 출판된 그림을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누락한 경우

”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해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타인이 출판한 논문에 사용된 그림(figure)을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원 논문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함.
- 해당 사례의 경우 polyethylene glycol (PEG)/polyanion을 활용하여 효소를 고정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원 논문에 사용된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표절에 해당됨. 자신의 논문에 polyethylene glycol (PEG)/polyanion을 활용하여 효소를 고정한 모식도가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원 논문의 출처를 밝히고 해당 그림을 사용할 수 있음.
- 참고 논문에 제시된 모식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해당 그림을 그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림의 저작권이 해당 논문을 출판한 출판사에 있으므로 그 그림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상적인 그림이 아니어서 그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 허가(copy right permission)를 받은 후에 활용하여야 함.
- 원자료 논문이 실린 학술지의 홈페이지에서 ‘Request for permission to reproduce published material’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여 출판사 또는 학술지 편집자에게 보내어 허가를 받아야 함. 학술지에서는 저자의 허가도 받으라고 적어놓고 있는데, 이는 원저자의 지적 노력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 있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음.<sup>26)</sup>

26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pp.26-27.

## 부적절한 인용 예시



Sharma 등은 갈락토스 산화효소(galactose oxidase: GalOx)를 poly-3-hexyl thiophene와 stearic acid와 함께 indium tin-oxide (ITO) 기판위에 Langmuir-Bloggett (LB) 박막 제조법을 활용하여 고정한 전류법 갈락토스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우유 속에 존재하는 갈락토스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22]. 이러한 바이오센서 디자인은 바이오센서의 보존 기간을 90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었으며, 더욱이 바이오센서의 감응 시간(response time)이 5.6-22.2 mM 농도 범위에서 60초로 매우 우수하였다.

- 중략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응 시간과 검출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GalOx 효소를 polyethylene glycol (PEG)과 polyanion을 이용하여 유리질 탄소 (glassy carbon: GC) 전극위에 고정한 갈락토스 바이오센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인간의 혈액시료 분석에 응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polyethylene glycol (PEG)/polyanion 모식도는 아래와 같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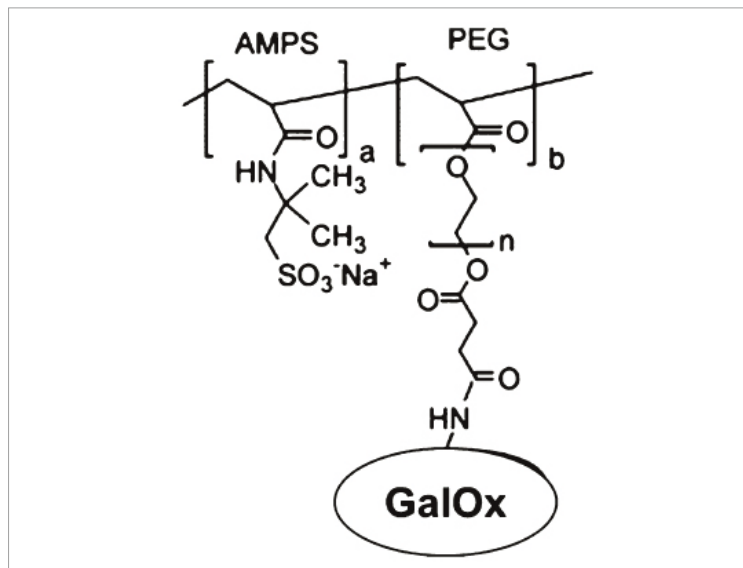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GalOx immobilization on GC electrode surface.